

# 봄도 왔는데... 텅 빈 닭·오리 농장

## AI 공포 여전... 전남 359개 농장 입식 금지 안풀려

### 전국 피해농장 재입식 사례 '0'... 농가 생계난 우려

전남도내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도내 상당수 축산농가들이 병아리나 새끼 오리를 입식하지 못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전남도내에서는 2016년 11월 16일 해남군 산이면 산란계농장에서 시작된 AI는 올해 3월 29일 장흥 육용오리 농기까지 2~3주에서 최장 41일까지 간격을 두고 축산농가들을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6년 11월 16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H5N6형이 20건, 41일 후인 2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H5N8형이 16건이 각각 발생했다. 종류를 달리하며 AI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입식을 하지 못한 축산농가가 수 백여 곳에 달하고 있어 생계난도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AI가 발생한 후 25개 방역대를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1월 10일 이전 발생한 14개 방역대는 해제하고, 2월 11일 이후 발생한 11개 방역대는 현재도 운영중이다.

11개 방역대에 포함된 해남, 강진, 무안, 장흥, 나주, 곡성 등 5개 시·군의 359개 농장은 닭·오리 입식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여기에 AI가 발생한 36개소와 예방적 살처분 80개소 중 상당수도 입식이 안 돼 농장이 텅 비어 있다. 다만 해제된 14개 방역대에 포함된 161개 농가는 입식에 가동중이다.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된 80개소 가운데 이동제한이 해제된 농가의 경우 전남도가 자체 입식시험을 거쳐 입식금지를 해제해 주고 있다. AI가 발생한 36개소는 검역본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까다로운 절차 탓에 1곳이 현재 입식시험중이다.

재입식을 하려면 닭을 3주일간 키우며 AI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입식시험을 한 뒤 분변·채혈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전남도에서는 10개 시·군 36건의 AI가

발생해 116농가 213만8000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다. 육용오리가 24건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오리 10건(28%), 산란계 2건(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AI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 AI로 피해를 본 전국 642개 농장 가운데 병아리나 닭을 다시 들여와 키우는 재입식 농가는 단 한 곳도 없다.

AI예방통제센터 관계자는 "재입식을 하려면 외부 출입을 차단할 울타리, 축사로 들어가기 전 소독을 하거나 방역복을 갈아입는 전실, 야생조류 침입을 막을 그물망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 농장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어느 멋진 날 미용 체험 광주시 북구와 대한미용사회 북구지회, 대한네일미용업 광주지회, 한국피부미용사회 광주지회는 11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북구 어느 멋진 날' 행사에 온 시민들에게 헤어드라이, 네일아트, 피부미용 등 뷰티 체험을 해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교육청 보호정책 효과... 교권 침해 줄었다

## 교권보호·힐링 연수 등 운영... 광주 지난해 43건·전남 9건 줄어

학생들이 저지르는 교권 침해 사례가 여전하다. 폭언을 퍼붓고 욕설을 내뱉으며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학생·학부모 대상 연수·힐링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나아지고는 있지만 선생님이란 단어의 무게감을 느끼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교육청은 11일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지난해 광주지역 교권 침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93건이 접수돼 전년도(136건)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 사례는 5건으로 전년도(1건)보다 늘어났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내뱉는 경우가 65건(2015년 82건)에 달했고 수업진행방해 17건(27건), 성희롱 1건(2건)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간 광주지역 침해 사례는 ▲2012년 490건(학부모에 의한 침해 13건) ▲2013년 253건(2건) ▲2014년 264건(2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교육청도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를 90건(2015년 99건)으로 집계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사건(3건)이 전년도(1건)보다 늘었고 수업방해(25건) 사례도 전년도(12건)에 견줘 증가했지만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전년도보다 줄었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교권 침해 사례는 ▲2012년 116건 ▲2013년 98건 ▲2014년 89건 ▲2015년 99건 등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내놓은 '2016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당 활동실적 보고서'도 지역별 교권 침해 상담 사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지난해 접수된 광주·전남 교권침

해 상담사례 건수는 24건(광주 11건·전남 1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광주 5건·전남 15건)에 비해 광주가 늘어났다. 광주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 상담(6건)이 전년도(1건)보다 늘었고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5건)도 전년도(4건)보다 증가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청의 정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광주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 강사단을 꾸려 교사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교권보호' 연수를 진행, 교권침해를 예방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교육청도 교사 직무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힐링 연수'를 매년 2차례씩 실시하는 한편, 교사·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신뢰를 회복하는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5    달뜨기 19:58  
해질 19:02    달지기 06:46

**외투 챙기세요**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 일부지역에 황사현상이 나타나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7/18	보성	6/18
목포	7/15	순천	10/19
여수	10/18	영광	5/15
나주	6/17	진도	9/13
완도	9/18	전주	5/17
구례	6/18	군산	6/14
강진	7/18	남원	4/17
해남	6/16	홍산도	7/17
장성	6/16		

**바다 날씨**

시해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방향	파고(m)	방향
남부	앞바다	0.5~1.5	남서~서	0.5~1.0	서
	면바다	1.0~2.0	남서~서	0.5~1.5	서
남해	앞바다	0.5~1.0	서~북서	0.5~1.0	서
	면바다(동)	1.0~2.0	북서~북	0.5~1.5	북
서부	면바다(서)	1.0~2.0	북서~북	1.0~2.0	북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높음
- 피부질환: 낮음

**주간 날씨**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	☀	☁	☁	☁	☀	☀
5/18	8/21	11/20	10/24	12/18	10/20	10/21

# 간호학과에 축구 동아리?

## 남학생 늘며 동강대·광주대 등 잇따라 생겨

동강대 간호학과에 '남풍(男風)'이 거세다. 2년 전 '금남(禁男) 지역'으로 꼽히던 학교에 축구동아리가 생기더니 올해만 신입생 13명이 들어왔다. 26명의 폭넓은 선수층을 확보해 동아리 축구 대회 우승까지 눈부셨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동강대 간호학과는 지난해 열린 '광주·전남 간호학과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다. 동강대를 비롯, 광주 전남 대학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축구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다. 동강대 뿐 아니라 동신대, 광주대, 송원대 등 9개 대학 간호학과에 축구 동아리가 만들어진 상태다.

최의진(21) 축구 동아리 회장은 "여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많지 않은 같은 학교 선배 남자들끼리 운동도 할 수 있어 축구 동아리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고 했다.

동강대 간호학과가 남자 복학생들을 대상으로 '웰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가 하면, '여성들만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산부인과에서 현장 실습을 받는 남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살피는 건 학교 교수들의 기본 업무가 됐다.

성 역할을 구별하는 장벽이 열리면 서 나타난 변화라는 게 대학측 설명이다.

동강대 간호학과에 입학한 지난해 남자 신입생은 44명. 2007년 처음으로 남자 간호사 지망생 11명이 입학한 것에 건지 4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간호학과에는 38명의 남자 신입생이 들어왔다. 동강대 간호학과 남자 신입생은 ▲2009년 21명 ▲2013년 24명 ▲2015년 44명 등으로 증가했다.

간호학과가 취업에 유리한 점도 작용했다. 목포대 법학과를 나와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신모(38)씨는 올해 초 동강대 간호학과에 입학한 '유턴(u-turn)족(族)'이다. 신씨는 4년제 학사 학위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전문대 문을 두드린 케이스다. 동강대 간호학과 취업률(2015년 말 기준)은 91.2%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공구상가 C 32동 401호 홈페이지 : bnitech.co.kr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E-mail : bnitech1122@naver.com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신단5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테이크아웃(포장판매) / 창업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저렴한 장비 구입하여 떡갈비/통닭 메뉴 추가/포장판매로 부가 이익이 발생됩니다.

**제품의 특징**

- ▶ 육즙이 살아있어 육질이 부드러움.
- ▶ 여러 집내가 없이 깔끔한 맛이다.
- ▶ 뛰어난 맛과 육질(부드러운) 포장판매 가능하다.
- ▶ 최고의 숯향(불맛)이 살아있다.
- ▶ 냉장보관 3일, 재고사용할 수 있다.
- ▶ 장비 이동이 용이하다.
- ▶ 전기, 가스가 필요없다.

**장기 카드할부로 구입비용 부담 줄이세요!!**

**적용분야**

- ▶ 가정집(남녀노소)
- ▶ 뷔시터, 야유회
- ▶ 팬션/콘도
- ▶ 캠핑시